

# 어린이가 주인이 되는 아동문학을 위하여

—평론집 『강의실에서 읽은 동화』 (권혁준, 문학동네, 2018)

오세란\*

## 1. 교육이 아닌 문학으로

동화를 읽는 어른, 그중에서도 초등 국어교육 연구자가 교육적 관점이 아닌 문학적 관점으로 동화를 읽고 비평을 펼치기는 쉽지 않다. 문학의 두 가지 기능은 ‘정서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인데 일반문학이 두 기능을 균형 있게 견지하거나 때로는 전자에 초점을 두는 데에 비해 아동문학은 아직 후자를 떠올리는 어른 독자가 많다. ‘문학 중심의 독서지도’라는 어찌면 당연한 말이 초등문학 교육 현장에서 강조되는 상황 역시 아동문학과 교육을 한 묶음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 아닐까?

아동문학평론가이자 교육대학교에서 제자를 양성하는 권혁준 선생의 평론집 『강의실에서 읽은 동화』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반가운 책이다. 이 책은 독서교육, 독서치료, 논술교육 등 동화를 매개로 한 교육학적, 발달심리학적 접근법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동화를 본격적인 문학적 관점에서 논하였다. 교과서 집필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필자의 역량으로 미루어 볼 때 초등국어교육현장에서도 이러한 문학적 시각이 이미 유의미한 결과를 낳고 있을 것이다.

선생의 동화 비평이 교육학적 시선을 넘어서는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

---

\*청주교대, bookyoh@hanmail.net

독자에 대한 사랑과 믿음 때문이다. 책 전반을 관통하는 ‘어린이의 본성을 긍정하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욕망을 드러낼 수 있는 문학’에 대한 지지는 그가 교육자이기 전에 아동문학이 ‘문학’임을 깊이 인식한 문학인이기에 가능하다. 문학이 ‘인간의 본성을 긍정하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욕망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장르임에 비추어 아동문학의 문학성은 자명한 일이다.

이번 평론집은 아동문학 장르용어 전반에 관한 고민에서 시작하여 각 장르별 동화 평론과 여러 작가의 작품을 보듬는 작업까지 아우르고 있다. 필자는 어린이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명력을 고양하는 작품을 판타지나 SF 장르, 저학년동화 장르에서 찾아보는 한편 현실주의 동화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를 경계한다. 본고는 우선 필자가 애정을 가지고 살핀 각 장르별 동화평론을 검토한 후 현실주의 동화에 대한 고민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다.

## 2. 판타지 속 성장과 놀이의 담론

어린이 독자를 중심에 둔 이번 비평집에서 먼저 주목한 장르는 판타지이다. 판타지동화의 핵심인 성장의 모티프를 분석하기 위해 필자는 『끝없는 이야기』(미하엘 엔데, 비룡소, 2003)와 같은 장편 판타지를 꼼꼼히 분석하고 성장소설과 근대소설의 뼈대가 된 ‘성장’이 판타지의 문법으로 확장된 사례를 든다.

여기에서 잠깐만 곁길로 나가자면 나는 근대서사의 키워드였던 ‘성장’이라는 단어를 이제 ‘변화’라는 단어로 다소 범박하게 부르고 싶다. 성장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고 유연하게 바라보는 최근 문학의 틀에서 볼 때 지나치게 진지하며 계몽적인 단어다. 인간의 페르소나는 일생 동안 다양하게 변화하며 그 모습은 언제 어느 자리에 있던 제각각의 진실이다. 따라서 서사에서 사건을 겪으며 일어나는 변화를 반드시 미성숙

에서 성숙의 방향이나 단계 상승으로 보는 시선은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성장이라 부르든 변화라 부르든 필자는 판타지서사 속 성장의 이면에 자유로운 놀이정신이 숨겨져 있음을 간파한 듯하다. 판타지에서 성장과 놀이는 동전의 양면이다. 즉 판타지에서 성장(변화)은 일종의 가시적인 결과이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은 판타지세계에 뛰어들어 주인공이 겪어가는 서사 속에 ‘모험’과 ‘놀이’의 정신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판타지가 제공하는 치유와 놀이의 기능이 결국 어린이에게 정신적 해방감을 준다는 필자의 결론과도 맞닿아 있다. 정신적 해방감이야말로 인간을 자유롭게 성숙시키는 전제 아니겠는가?

한편 이러한 관점은 저학년 동화 평론이나 옛이야기의 관습을 이어받은 동화 평론 혹은 최근 작가들의 작가론 등에서도 이어진다. 가령 송미경의 동화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후 “송미경의 판타지동화는 리얼리즘동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보여 주며 이 시대 아이들의 처지와 아픔을 극적으로 제시한다”(109쪽)고 평가한다. 송미경의 이상한 판타지는 언제나 작중 인물의 내면을 투영한다.

SF에 관한 평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SF 평론은 오래 전 출간된 과학소설부터 최근 작품까지 광범위하게 살핀 역작이다. 특히 2014년 발표된 원고를 평론집으로 묶으면서 최근 동화인 『복제 인간 윤봉구』(임은하, 비룡소, 2017)나 『아토믹스』(서진, 비룡소, 2016) 등의 SF를 차용한 작품들의 문제점까지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복제 인간 윤봉구』는 ‘인간 복제가 야기하는 윤리적, 철학적, 존재론적 문제 등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바탕이 되지 않아 독자에게 가벼운 재미를 주는 데 그치고 있다’(62쪽)고 그리고 『아토믹스』는 ‘주인공이 특수 슈트와 헬멧을 쓰고 형질이 변화된 괴수들을 물리치는 바다 속 활극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그 활극은 방사능이나 원전

이 초래할 미래세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잊게 한다'(65쪽)고 평가한다.

판타지나 SF문학의 구성은 의외로 원형적이다. 평범한 삶을 내려놓고 모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의 약한 주인공이 단단한 악을 만나 강하게 변신하는 플롯은 풍성한 에피소드를 만나 현대사회에서도 유효하게 확장되며 동시에 신화의 원형성을 복원한다. 최근 몇 년 간 창작된 대중장르를 차용한 동화의 문제점은 위험한 악, 생명의 문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 등 인물이 마주해야 할 본질적 담론을 비껴가는 서술 태도에 있다. 이는 주인공이 악과 제대로 된 승부를 가릴 수 없게 만든다. 경기 시작 전에 이겼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빠지는 일이다. 작품 속 과학 지식이 어린이독자의 눈높이에 어려워서 비껴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존재와 생명윤리에 대한 성찰은 장르문학이 어린이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이며 그것을 아동문학의 차원에서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필자가 예로 든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이야기 전체구조에서 성장이야기로의 성장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고 작가가 창조한 환상세계의 법칙이 논리적임에도 본격문학의 정전이나 판타지문학의 진정한 가치에 오르지 못했다는 필자의 평가, 즉 해리 포터가 가진 현실인식의 고민이 깊지 못하여 호그와트의 마법이 흥미 차원으로만 소비되어 버린 지점, 볼드몬트로 대표되는 악의 세계와 호그와트로 대표되는 선의 세계가 상투적 권선징악 스토리로 흐른 것, 그 결과 시리즈가 통속화되고 대중화되었다는 지적,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주인공이나 독자에게 제대로 된 악의 본질을 알려주지 않고 회피할 때 발생한다.

추리소설의 창작론에는 “모든 패를 독자에게 보여주어 독자와 작품 속 탐정이 추리과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야 한다.”는 룰이 있다. 추리소설이 아니더라도 장르문학 속 주인공은 악당과 정면으로 진검승부를 펼쳐

야 한다. 현재 많은 동화는 장르문학의 뼈대만 빌려왔을 뿐 서사는 이미 기획된 선과 악을 관습적으로 반복한다. 평론집에서 필자는 바로 이 지점, 어린이 독자를 진지한 승부 상대로 여기지 않고 주제에서 비껴나가는 원인과 결과를 지적한다.

### 3. 현실주의 동화의 ‘전망’의 문제

이번 평론집에서 나에게 깊은 공감과 고민을 함께 안겨준 지점은 현실주의 동화에 대한 평론들이다. 현실주의 동화가 가진 지나친 뾰족성과 현실 고발적 성격, 일방적 계몽적 태도의 경계는 서두에서 언급한 필자의 ‘어린이 독자’에 대한 애정과 연동된다. 나 역시 이야기의 뾰족성이 어린이 독자 보다는 학부모나 교사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은 작품을 만날 때가 있다. 따라서 어른들의 삶의 자리를 보여주는 아동문학의 서사전략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번 평론집에서는 현대 어린이독자의 눈높이와 세계에서 동화 속 인물들의 상황이 어떻게 다가갈지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다. 「어린이의 본성을 긍정하는 아동문학」 평론에서는 우리 아동문학사의 대표동화에 등장하는 ‘자기희생적 주인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만년샤쓰」, 『몽실 언니』의 주인공이 가진 공통점은 어린이다운 욕망과 자연스러운 본성에 거리가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실주의 동화가 현실을 진지하게 반영하지만 이런 경향의 이야기, 예를 들어 『내가 나인 것』(아마나카 히사시, 사계절, 2003)과 『문제아』(『문제아』, 박기범, 창비, 1999)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비추어 바람직한 전망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한다. 필자는 “독서 체험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세계는 비판적이며 암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아직 현실의 냉혹함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독서 체험 자체가 또 하나의 좌절의 경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49쪽)라고 어린이독자가 현실세계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지점을 염려한다. 이러한 관점은 평론 「아동소설에서 불행한 아이들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서 김남중 동화를 분석하며 재차 드러난다. 즉 필자는 현실주의 동화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지만 어린이 독자의 시각에서 작품을 다시 읽어낸다. 그리고 비판적 리얼리즘의 중도적 인물론으로 리얼리즘 작품의 전망 부재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위의 평론들을 읽으며 나는 몇 가지 질문과 고민이 떠올랐다. 첫째 우리 아동문학사의 중요한 동화의 주인공들이 ‘자기희생적 주인공’이 많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역사적 맥락과 함께 살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한국 동화의 주인공들은 자기희생적 인물이 두드러졌을까? 이는 2000년대 이전 동화작가들이 가진 ‘동화’에 대한 장르인식이나 한국 현대사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현대에 돌이켜 볼 때에는 분명 필자의 의견이 타당하지만 앞으로 아동문학사적 이유도 함께 규명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둘째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현실주의 동화 계보의 대표자인 이원수 아동소설 속 주인공도 이른바 중도적 주인공이지만 지금 돌아볼 때 그들이 자신의 삶을 버거워하기 보다는 씩씩하게 나아가는 듯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가령 1960년대 초반에 발표된 『민들레의 노래』(이원수, 사계절, 2001)의 주인공 현우나 정미는 초등학교 고학년 생인데 그들은 4·19 혁명을 비롯한 여러 상황에 부딪쳐서도 꺾듯이 성장한다. 손창섭의 『싸우는 아이』(우리교육, 2001)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나는 필자의 논점에서 작품이 어떤 현실을 어떻게 그리는가 보다는 그 현실에서 등장하는 어린이인물이 세상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논점을 모아보고 싶다. 필자가 현실주의 동화 중에서 전망 부재

의 대안으로 삼은 작품은 남찬숙의 동화들이다. 필자는 『니가 어때서 그카노』(사계절, 2006)의 기철이가 “집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면적으로 부쩍 성숙해지”(119)는 모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받은 편지함』(우리교육, 2005)의 주인공 순남이가 ‘거짓말 편지’라는 자신의 처지에서 일으킨 문제의 해결을 통해 환경에 대한 성찰에 이르는 점을 주목한다. 나는 여기에 이은정의 『소나기밥 공주』(창비, 2009)도 추가하고 싶다.

이들 주인공들은 중도적 인물이 가진 비판적 시선이 아닌 씩씩하게 내일을 여는 이른바 “전망”을 가진 인물로 차별화된다. 현실주의 동화가 비판적 리얼리즘의 모양새를 가진다고 해도 어린이 주인공은 작품 속 ‘전망’을 불어넣는 모종의 역할을 감당한다. 짧은 글로 깊게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이번 평론집을 통해 앞으로 현실주의 동화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4. 어린이가 동화의 주인임을 잊지 않는 평론 쓰기

평론집 머리말의 제목 ‘어린이가 주인이 되는 아동문학을 위하여’처럼 필자는 어린이독자가 주체가 되어 동화를 읽고 문학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 주인공을 내세워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 역시 평론가의 한 사람으로 이러한 관점에 적극 동의한다. 아동에게 주제를 강요하는 동화, 어린이독자 너머에 있는 학부모의 관심을 받으려는 동화가 적지 않게 생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동문학이 발전하기 위한 평론가의 역할은 어린이독자와 어른 작가 사이의 균형잡기다. 비유하자면 평론가는 어린이와 어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가끔 평론 읽기를 즐기는 독자들이 성인문학의 평론들은 작품을 지렛대 삼아 심리학, 사회학, 정치지형 등의 다양한 논제로 다채롭게 확장시키는 데에 비하여 아동문학 평론은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

과 비평에 한정되어 심심하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최근 심층심리학이나 미학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동화가 출간되면 여러 평론가들의 눈길과 주목을 먼저 받기도 한다.

그러나 평론가그룹 혹은 어른독자의 흥미에 맞춘 평론 쓰기는 아동문학 평론가들이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평론가의 입장에서 작품의 미학성이나 서사적 참신함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지만 이러한 작품의 특징을 분석하는 작업과 실제 어린이독자를 위한 작품으로 유의미한가를 평가하는 것은 다른 사안이다. 비평가의 눈을 먼저 사로잡는 작품들이 실제 어린이 독자를 위해서는 과유불급인 경우도 적지 않다. 도리어 현학적 평론을 유도하는 작품을 경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거리 감각이 있어야 한다. 이는 아동청소년문학 평론을 하는 이들이 몇 번이고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 평론집은 분명한 문학적 자리에 있으면서도 시대의 트렌드에 눈길을 주거나 경도되지 않은 결과물이다. 하나의 주제를 선택하면 연구해야 할 시대를 넉넉히 잡아 찬찬하고 꾸준하게 작품을 두루 살폈다. 화려한 테마의 글이 먼저 주목받고 그 테마마저 급변하는 이 시대, 평론가나 연구자가 새삼 배워야 할 묵묵한 자세이다.